

'거대 프로젝트' 투자유치가 관건 (문화일보 2003.10.15)

‘거대 프로젝트’ 투자유치가 관건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출범 의미와 전망

예진수기자 jinye@munhwa.co.kr

동북아 경제중심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인천 경제자유구역 개발전략이 구상단계에서 실행단계로 접어들었다.

국내 처음으로 경제자유구역청이 15 일 출범함에 따라 2020 년까지 서울 여의도 면적의 70 배인 총 6336 만평(209㎢), 인구 49 만명의 21 세기 형 첨단 도시로 건설될 경제자유구역 ‘거대 프로젝트’가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냈다. 정부는 이 지역에 다국적 기업의 아시아 태평양 본부와 MGM, 유니버설 스튜디오등 세계적 대형 리조트업체, 차이나타운, 외국 유수의 학교·병원등을 유치한다는 청사진을 마련했다. 또 세계 수준의 교육·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어서 우리 경제의 개방화·국제화를 가속화시키는 발판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 지역별 개발전략 ■ 경제자유구역은 송도지구와 영종지구, 청라지구로 나뉘 개발된다. 단기적으로는 내년말까지 인천공항내 30 만평의 관세자유지역이, 2005 년말까지 15 만평의 국제업무단지가 조성된다.

장기적으로 인천 서구 경서동 일대의 청라지구(541 만평)내 170 만평에는 유니버설 스튜디오등을 유치해 테마파크를 조성하고 차이나타운도 만들어 중국 동북부 비즈니스 수요를 흡수할 계획이다.

인천공항을 포함하고 있는 영종지구(4184 만평)는 동북아 항공물류

거점으로 항만 배후단지,

국제유통단지, 산업용지등이 완비된 국제물류지역으로 개발된다.

인천공항 화물터미널을 2005 년까지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 이곳에 국제특송화물 '빅 4(UPS, 페덱스, DHL, TNT)'의 아·태지역 본부를 유치키로 했다. 인근 용유도는 카지노, 호텔, 워터파크등을 갖춘 해양종합 리조트로 개발되고 무의도는 차없는 무공해섬이자 자연상태형 관광지로 조성된다.

세계 500 대기업 대상으로 지역본부를 유치키로 한 송도지구(1611 만평)의 경우 국제물류, 비즈니스, 지식정보산업 거점으로 조성돼 다국적 기업의 아·태 지역 본부와 정보기술(IT), 바이오산업(BT)관련 국제기업이 유치된다.

미국 게일사와 포스코 주도로 추진되는 국제비즈니스 지구 개발과 관련, 10 월부터 1 단계로 컨벤션센터, 쇼핑몰, 주상복합 개발에 착수했으며 내년 4 월부터 2 단계로 중앙공원과 호텔, 병원, 학교, 주거단지 개발을 본격 추진한다.

◆ 전망 · 문제점 ■ 인천경제발전연구원은 경제자유구역 조성이 완료되는 2020 년까지 총 202 조원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성공적으로 조성이 마무리될 경우 440 조원의 생산유발 및 부가가치와 함께 484 만명의 고용창출효과가 기대된다.

하지만 막대한 자원 조달과 외국인 투자유치가 성공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라는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한국 노사문제에 대한 외국인투자자들의 불안감등도 투자 유치의 걸림돌로 꼽히고 있다. 외국 의료기관이나 학교 유치과정에서 국내 교육·노동단체와 관련기관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특히 대규모 개발과정에서 부닥치는 환경훼손과 난(亂)개발 우려 등이
경제자유구역 개발의 암초가 될 전망이다. 송도지구는 1286 만평이나 되는
인천 앞바다 갯벌 매립과 추가 매립 문제로 환경단체 반발에 부닥쳐 있다.

예진수기자 jinye@munhwa.co.kr

기사 게재 일자 2003/10/15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03101501031124025002>